현불논단

전쟁과 평화 그리고 불교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학과
명예교수

이-팔 충돌, 인간 어리석음 확인
종교와 민족 분쟁이 갈등의 원인
신념 신화화된 종교, 민족 고위험
종교, 정치 엘리트들 이를 이용해

불교, 폭력을 삼독심 내면화로 봐
故박이문 교수 "자비는 보편 윤리"
자비 윤리, 도덕적 갈등 조율 가능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무력 충돌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을까를 가늠하게 한다.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인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참상과 비극은 우리의 가슴 저리게 만든다. 이번 무력 충돌은 5차 중동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 크며, 제3차 세계대전은 중동전쟁의 확대에서 온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가자'는 4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도시로서 〈구약〉에 나오는 삼손이 활동한 곳이라고 한다. 가자는 바로 셈족의 땅이다. 셈족은 구약의 창세기 '노아의 방주'에 나오는 노아의 장자 '셈'에 기원하며, 아브라함 계통의 유일신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셈족에서 나왔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동 사태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러나 제일 큰 원인은 종교이고, 이 종교가 민족 정체성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종교와 민족이 하나의 신념체계로 신화화되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게 된다. 종교와 정치의 관계는 일란성 쌍둥이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종교의 믿음 체계와 정치 이념은 그 구조와 기능면에서 같은 성격의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다.

정교분리의 개념은 계몽과 근대화의 과정에서 나온 선언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만큼 종교와 정치 이념의 결합으로 인한 폐해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와 정치 엘리트들은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집단 정체성을 유도하면서 많은 사람을 갈등과 폭력의 마당으로 내몰고 있다. 여기에 붓다의 가르침이 있다. 불교의 가르침은 '폭력'을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삼독심(三毒心)이 내면화 된 상태로 보고 철저히 거부한다. 공격성은 자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그 자아를 보호하려는 욕망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숫타니파타〉에 표현된 붓다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그 소망을 보자.

"죽이려고 투쟁하는 사람을 보라. 무기를 손에 들고 다른 이를 치려고 하는 데에서 두려움이 시작되었다. 내가 겁에 질려 폭력을 멀리 떠나게 된 충격을 말하리라. 물이 말라가는 연못의 물고기처럼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서로가 서로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광경을 보고 서늘한 공포가 내게 일어난다."

"저들은 나와 똑같고 저들도 똑같다고 생각하여, 나의 입장으로 바꿔 생각해서 결코 다른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 또한 다른 사람을 죽게 해서는 안 된다."

위의 경전 내용은 현재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살육의 현장이 바로 '물이 말라가는 연못의 물고기 상태'이고, 이를 구제하는 방법은 '내 입장으로 바꿔 생각'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자비 윤리이다, 이미 타계한 철학계 원로 박이문 교수는 저서 〈자비의 윤리학〉을 통해 유교의 인(仁)과 기독교의 사랑을 빼고 자비를 보편 윤리의 덕목으로 내세운다. 그 이유는 자비의 윤리는 도덕적 판단이나 결정의 독단성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비의 윤리는 도덕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틀이라는 것이다. 불완전한 인간 존재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타인에 대한 자비가 바탕이라는 것이다.

영국의 선더랜드대학의 피터 하비(P. Harvey) 교수는 〈불교윤리학 입문〉에서 '전쟁과 평화'라는 독립된 장을 만들어 갈등 해결과 평화를 위한 불교 경전 내용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불교의 전파 과정에서 기독교나 이슬람교의 예에서 나타난 성전 개념은 없다. 자비와 비폭력은 불교의 대명사였다. 그러나 근현대에 이르러 예외적인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제국주의에 협조한 일본불교의 사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지금 한국사회도 깊은 갈등의 용광로에 빠져 있다, 상을 넘어 상의 노예가 되지 말자는 〈금강경〉의 가르침이 아득하다.

社說

부석사 관음상 판결은 '반역사적'

도난·약탈문화재 관련 국제 규약 무시한 판결
'비상식적 판례'로 향후 환수운동 악영향 예상
정부·사법부 스스로 '역사의 죄인'임 인지하길

결국 서산 부석사의 관세음보살님은 부석사로 돌아오지 못하고, 다시 현해탄을 건너게 됐다. 대법원 1부는 10월 26일 서산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소송 상고심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부터 관음상을 놓고 이어진 7년간의 법정 공방은 부석사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서산 부석사 관음상은 1330년 부석사 불상을 조성했다는 복장 결연문을 토대로, 고려 말기 왜구들의 약탈에 대마도로 옮겨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한국인 5명이 대마도 사찰에 침입해 관음상 등을 훔쳤고, 이후 인터폴 요청을 받은 한국 경찰이 절도범 일당을 검거했다.

원소유주가 부석사임이 확인되며 서산 부석사는 2013년 '부석사 금동관음보살 제자리봉안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원에 불상 반환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는 곧바로 받아들여졌다. 2015년 7월 소유자 주장이 없던 통일신라 금동여래입상만 일본으로 돌아갔고, 부석사 관음상은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남았다.

이후 서산 부석사는 2016년 정부를 상대로 관음상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1월 26일 대전지법은 "정부 보유 관음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며, 인도 집행 정지 신청을 낸다. 이후 대전지법은 검찰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다시 논란이 됐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문제가 됐던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현재의 부석사가 동일한 권리 주체임은 인정했지만, 소유에 대한 준거법은 일본 민법에 적용된다고 봤다. 대마도 관음사가 1953년 관음상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년이 지난 1973년 일본의 민법에 따라 불상의 소유권이 인정됐기 때문에 서산 부석사의 소유권이 상실됐다는 게 대법원의 주된 판결이다.

대법원 판결에 불교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산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은 "패륜적 판결"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조계종은 대변인 우봉 스님 명의의 입장문에서 대법원 판결을 "반역사적 최악의 판례를 남겼다"고 꼬집었다.

불교계의 성토는 근거가 충분하다. 1995년 채택된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사법통일국제연구소 협약' 5조에는 "협약 국가 간에 취득시효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반출 문화재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유네스코에서 1970년에 채택한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7조에도 불법 반·출입 문화재의 회수 및 적절한 반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도난 및 약탈문화재에 대해서 여러 국제 규약에는 반환의 당위성과 원소유자의 당연한 권리를 명시했지만,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이를 무시한 판결을 내려 관세음보살님을 다시 약탈의 주체인 일본으로 보내버렸다. 이는 불자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주는 일이다. 나아가 약탈 문화재 환수에 있어서 국제 정서에 반하는 비상식적이고, 몰역사적인 선례를 남긴 역사의 죄인이 됐음을 정부와 사법부는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로 환지본처는 좌절됐지만,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는 서산 부석사 관음상의 환지본처에 대한 노력을 이어가길 바란다. 또한 아직 돌아오지 못한 도난·약탈 성보의 환수에 힘써주길 기대한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인현 스님의
제주 山房日記

고려국 탐라 대표사찰 '묘련사지'

어느덧 햇살에 등을 기대는 계절이다. 그 햇살이 신비로운 곳이 광령리이다. 지금은 '산이 아름답고 물이 맑다' 하여 광(光)이요, '주민이 밝고 선량하다' 하여 령(令)이라고 하지만, 이원진의 〈탐라지〉에서는 '광령(光靈)'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마을의 '절동산'에 자리한 향림사 경내에는 샘이 있다. 이 샘을 절물로 부르는 것은 이전에 영천사(靈泉寺)란 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곳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제주목 관아에서 서쪽으로 25리에 있다"라고 한 묘련사지가 아닌가 싶다. 묘련사지의 위치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증보탐라지〉에는 "애월읍 곽지리 서쪽"이라 했으나 거리가 40리가 넘는다. 〈북제주군의 문화유적〉에서는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774번지(대각사) 주변 일대를 묘련사지로 보고 있다.

고려 말기 강진 백련사 혜일 선사는 "황량한 남쪽 이곳 날씨는 맑다가도 자주 흐려지는데/ 오늘 저녁은 맑게 개어 나그네 마음을 맑혀주네/ 한 조각 꿈인 인생이야 피고 지겠지만/ 한가위 달빛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아/ 멀리 내다보니 아득한 안개 속 물가는 확 트였고/ 비낀 달그림자 침침한 죽실에 드리워/ 밤이 깊어갈수록 생각은 오히려 맑아지니/ 저절로 시가 솟아나는 것을 어찌하지 못하네"라고 묘련사를 노래했다. 이러한 정취를 담고 있고, 기록된 거리상으로 보아 지금의 향림사 주변이 묘련사지로 추정된다. 그리고 동원(東院)인 보문사지에 보문촌이 있었듯 서원(西院)인 묘련사에도 광령마을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론된다. 이 묘련사에서 제주 최초의 목판 판각이 이뤄졌다.

순천 송광사의 〈조계산송광사사고〉와 조선고적연구회의 〈순천송광사장고려판천순판불전〉에 의하면 이곳 묘련사에서 '금광명경문구' 판각이 이뤄졌음이 확인된다. 이 판본 끝에는 "원정 2년(1296년) 고려국제주묘련사(妙蓮社)에서 폭포사주지 안립이 주도했다"라고 기록돼 있다. 여기서 '고려국'라는 문구는 이 판본이 국간(國刊)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는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을 쓰는 등, 고려가 원으로부터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때이다. 1294년 원세조가 죽고 성종이 즉위하면서 충렬왕의 요청을 받아들여 탐라국을 고려에 돌려준다. 1301년에는 탐라총관부를 폐지하여 탐라군민만호부를 세웠다.

이와 함께 충렬왕은 원찰로 개성에 묘련사를 창건해 신행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 절은 천태사상을 선양하는 중심사찰로 천태종의 결사도량인 백련사(白蓮社)의 분원 역할을 맡아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다. 이를 위해 호국삼부경의 하나로 참회하는 법, 업장 소멸, 사천왕에 의한 국가 보호, 불법을 보호하는 국왕의 공덕, 이 경을 설하고 독송하는 이의 공덕에 대해 설하는 금광명경을 판각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래서인지 제주 묘련사도 절(寺)이 아닌 결사(社)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백련사의 혜일 선사가 탐라국을 돌아보고, 제주 묘련사에서도 금광명경을 판각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서 〈탐라지〉에 묘련사에서 제주목관아의 종을 주조했다고 한다. 이 같이 제주 묘련사는 목판 판각뿐만 아니라 철 주조 기술까지 갖추고 있던 탐라의 대표사찰 중 하나였음이 분명하다.

〈제주 선래왓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New
캔바스 수행화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 (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절찬 판매중!!



그레이화이트 그레이블랙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87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 소 재 : 캔바스 (내피없는 시원한 재질)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